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찾아가는 양조장
전통방식 그대로 (첨가물 0% 수작업 100%)
제주고소리술 소메기맑은술
제주술익는집 | 역사적가치가 크고 술맛이 좋다하여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SINCE 1989 창간 32주년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9115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0년 5월 15일 금요일(음력 4월 23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4·3특별법 범국민적 역량 모아야"

어제 제주도의회 특별위원회 주최 유관기관 토론회서 제기

"협업·소통 적극 강화 실행계획 마련 필요"

제주4·3특별위원회가 마련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가 1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의 내용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 위기에 놓인 가운데 21대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개정안 통과를 위한 새로운 소통·협업 전략 등 실행계획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4·3유족회를 비롯해 제주도, 도교육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향후 일정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우선 지난 1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아쉬움을 토로하며, 향후 21대 국회 통과를 위해 범도민 대응기구 구성 등 도민 역량을 집중시키고, 여당과 야당의 힘을 합쳐 통과시켜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1999년 4·3특별법 제정 당시를 회고하면서 향후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민사회의 총결집, 정부를 비롯한 여야 설득, 법안심사과정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강호진 4·3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은 도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범도민·국민 대응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 움직임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함을 피력했다. 또 여당에서 야당을 압박하는 형식이 아닌 공동의 합의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도 "도내 120개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업·소통한다면 (개정안 통과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은 도의회와 도가 주축이 돼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토대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고, 이승아 의원은 "더이상 정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소통과 설득의 문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현길호 의원은 "법안들이 폐기되고 새롭게 준비될텐데 시작단계부터 여야 충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도민사회 의지를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함을 피력했다.

송승문 4·3유족회장은 "20대 국회서 만약 불발된다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힘을 합쳐서 대통령 임기내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사용지역 제한 없애고 현금으로"

원희룡 지사, 정부 재난지원금 관련 건의

기자회견 하는 원희룡 지사 사진=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의 제한을 없애고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처와 사용방법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사용기간과 지역을 제한하며 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전체 민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대가 해당 방침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지급하도록 기준이 정해졌다. 제주의 경우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3755명(1976세대)이 전입하고 3757명(1987세대)이 전출해 약 7500여명(4000여 세대)이 정부지원금 사용을 위해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이동해야 한다.

원 지사는 또한 현재 신용·체크·선불카드 포인트 충전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백금탁기자

오늘부터 강한 바람 동반 많은 비

기상청, 남부·산지 최대 200㎜ 이상 예보

15일부터 제주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우리나라 남부지역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5일 0시부터 16일 오전 3시까지 제주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고 14일 예보했다.

특히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돌풍과 천둥·번개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지형적 영향을 받는 제주 산지와 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30㎜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예상 강수량은 50~100㎜로 남부와 산지에는 최대 2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5일 0시부터 자정까지 바람이 초속 9~16m 속도로 불 것으로 예상하고 강풍예비특보를 발효했다.

또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제주 앞바다에 바람이 초속 10~16m로 불어 물결이 2~4m 높이로 높게 일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매우 강한 바람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설치한 선별진료소 천막이나 간판, 건축공사장, 철탑 등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사전에 시설물을 관리·점검해달라"면서 "또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운항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으니 해상안전사고에도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알림

맑고 푸른 제주를 가꿉시다

제27회 '한라환경대상'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라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라환경 대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번 한라환경 대상은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환경에 대한 UCC 공모전도 함께 진행 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시상 부문 및 상금

• 참가자격 : 기업체, 단체, (공)기관, 학교, 교사, 학생, 개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

• 한라 환경 대상 시상

구 분	포 상 내 용	
대 상	1명(팀)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1명(팀)	상금 200만원
우수상	1명(팀)	상금 100만원
학교 부문	학교최우수상 1개교	상금 150만원
	교사최우수상 1명(팀)	상금 100만원
	학생최우수상 2명(팀)	중·고등부 50만원
		초등부 50만원

• 한라 환경 UCC 공모전

최우수상(1팀)	일반 및 대학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1팀)	고등부	상금 150만원
최우수상(1팀)	중등부	상금 50만원
최우수상(1팀)	초등부	상금 50만원

※ 기 수상자의 경우 수상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수상 자격 부여함
※ 단, 참여자가 주로 제주도민인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장만 수여 함

선정방법 신청 시 제출한 세부 공적 자료에 대한 서면 심사
(단, UCC 공모전의 경우 촬영된 영상물을 심사)

시상일자 및 장소 2020년 6월 12일(금) / 한라일보사(제주시 서사로 15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추천서(소정양식) 1부
※한라일보 홈페이지(www.ihalla.com)에서 양식 다운로드
• 세부 공적 개요 및 증빙 자료 첨부
• UCC 공모전의 경우 영상물을 저장하여 제출

접수마감 및 문의처
• 2020년 5월 29일(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orca@hallailbo.co.kr)로 접수
• 한라일보 경영기획실 ☎ 750-2523, 750-2540, 팩스 750-2520
(※자세한 내용은 본보 홈페이지 '제27회 한라환경대상' 배너에서 확인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일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www.kcdc.go.kr 질병관리본부

새로운 일상
생활 속 거리 두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2020.05.06.